

T V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KBS 스포츠 타임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F1 100배 즐기기	40 아침연속극 <미쓰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김도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여유만만		40 SBS 뉴스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00 행복한 교실 55 바른길 고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TV 특강(재)	00 주말연속극 <천일의 약속>(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00 특별기획 드라마 <공주의 남자>(재)	00 MBC 뉴스 15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건강클리닉
00 KBS 결집전 <사랑을 믿어요>(재)		05 TV 특종 <뉴스는 세상을 바꾼다>	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분야>
00 KBS 뉴스 10 전국체육대회	10 호루라기(재)	00 F1 싱가포르 그릴프리	
	00 KBS 뉴스타임 05 TV동화 행복한 세상 15 어린이 뮤지컬 바라비라 공	00 키즈 어드벤처 <여기가 어디야?> 50 MBC 뉴스	00 SBS 뉴스 10 인문학 열전
00 KBS 오늘의 경제 10 전국체육대회	00 TV 유치원 30 파워 마스크	00 뽀뽀맨 아이즈 30 안녕 토모비	00 쥬블스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00 사랑의 가족 30 영희의 바다로 오세요 50 프로야구 중계방송 4차전 (SK대 KIA)	00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애정만남>(재)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다큐로 만나는 세계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6시 뉴스가게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7 30 남도매거진 <당신의 프리즘>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10 시사타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여신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한밤의 TV연예
00 KBS 뉴스9	50 KBS 뉴스타임 55 수목 드라마 <영광의 재인 첫 회>	55 수목미니시리즈 <지고는 못살아>	55 드라마스페셜 <뿌리깊은 나무>
00 특집다큐 임버린 오아시스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KBS 뉴스라인 40 정점토론	15 추적 60분	05 황금어장 <굿바이, 무릎팍 도사>	15 테마스페셜
25 KBS 뉴스 35 클래식 오디세이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TV 특강	20 MBC 뉴스 24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15 TV백과사전 25 나이트라인

늦가을 안방극장 적실 지고지순한 순애보

SBS 새 월화드라마 김수현 작가의 '천일의 약속'

'언어의 마술사'로 불리는 김수현 작가가 늦가을 안방극장을 적실 지고지순한 사람 이야기를 선보인다. SBS가 '무사 백동수' 후속으로 준비한 새 월화드라마 '천일의 약속'(극본 김수현, 연출 정을영)은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와 그 여자와의 사랑을 지키려는 남자의 순애보를 그린 드라마다. 11일 SBS 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김영섭 CP는 "시청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푸근하게 해줄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지고지순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뜨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작가의 오랜 콤피니 정을영 PD는 "정상스럽게 만든 음식이 맛있듯 정상스럽게 만든 드라마가 더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 이서연 역은 배우 수애(사진)가 맡았다. 이서연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도 헤어진 뒤 동생과 함께 고모 집에서 자란 이서연은 '엷혀 사는 처지'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누구보다도 담차고, 부지런하며 능력있는 커리어우먼으로

성장했다. 어느날 업무차 들른 화랑에서 첫사랑 지형과 재회한 이서연은 이미 약혼자가 있는 지형과 위험한 사랑을 시작한다. 이서연의 연인인 건축설계사 박지형은 김래원이 연기한다. 정략 결혼을 앞둔 지형은 우연히 재회한 첫사랑 이서연과 비밀 연애를 시작하고, 이서연이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안 뒤로는 모든 것을 팔고 지형에게 매달린다. 김래원은 "지형은 미련할 만큼 한 여자를 사랑하는, 지독한 사랑을 하는 남자"라고 소개했다. 이서연의 고종 사촌 오빠이자 지형의



친구인 장재민 역은 이상우가 맡았다. 이들 외에 임채무, 김해숙, 박영규, 이미숙, 오미연, 박유환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경비탁대회

노골적인 노름수
3회전 1국 6보(107~139)

白 조영배 (주택관리사회) 黑 정재욱 5단 (KT 광주본부)

백 112로 붙여 흑 대마를 위협하면서 우변을 키워가는 것이 좋은 수법으로 점차 백의 우세로 기울고 있는 형국이다. 조영배 5단이 콧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반대로 정재욱 5단은 괴롭다. 흰가 반전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흑 109에 두어 왼쪽 백의 약점을 노렸는데 이 수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백 110로 지키고 보니 오히려 백을 편하게 해주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호구치고 3으로 두어 백 모양을 지워야 했다. 백이 112로 붙여다 보고 114로 찢혀가니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흑 대마는 한번 '가'에 두어 언제든지 살 수 있기는 하나 이곳을 두어 후수로 살아야 한다면 집부족의 양상이라 상당한 부담이다.

참고도
흑 131로 뺀어 끝까지 백의 약점을 노렸으나 백 132가 매우 아름다운 자리였으며 흑 139가 최후의 승부수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2일(음 9월 16일 庚子)

36년생 가벼운 근심은 많이 많고 무거운 근심은 많이 적으나, 48년생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 60년생 불행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예는 없음을 알라. 72년생 말다툼하지 말라. 84년생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8, 21

37년생 지혜로운 이도 천 가지 생각에 한 가지 실수는 있음이라. 49년생 주변인들에게 믿음을 쌓아야겠다. 63년생 우매한 자의 귀에는 현인의 말도 어리석게 들리느니라. 73년생 길과 흉이 교차한다. 88년생 고통의 보수는 경험이니라. 행운의 숫자 : 84, 33

38년생 삼정승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잘 가지라. 50년생 양심은 천 명의 증인이 맞먹느니라. 62년생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 아주 기쁘다. 74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하면 실수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1, 87

39년생 돈이 다급하여 비상금까지 쓰고 보았다. 51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면서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겠다. 63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을 이룰 수 있느니라. 75년생 사자 밑에서도 정만 있으면 산다. 행운의 숫자 : 60, 18

40년생 자기 개발의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면 발전이 있다. 52년생 세상에 처하는 반드시 공만을 찾지 말라. 64년생 유흥 속에 있어 있다면 허송세월을 한탄하라. 76년생 연금자를 공경할 것을 순화하라. 행운의 숫자 : 77, 24

41년생 만사를 살피 우위로 진행하라. 53년생 정다운 가족에게 반격하게 되는 하루다. 65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77년생 무식은 모든 재년의 어머니이다. 행운의 숫자 : 59, 38

42년생 반자란 정신도 돈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인간이니라. 54년생 형제나 근친 간에 말썸이 일 수도 있으니 자신을 잘 살피라. 66년생 간 밤의 꿈을 과신하지 말라. 78년생 건장한 정신은 건장한 신체에 머무르느니라. 행운의 숫자 : 02, 39

43년생 현재는 재각각이니 확률적인 평가는 곤란하다. 55년생 광경이나 고쳐수는 있다. 67년생 허물은 생방에 존재하느니라. 극단으로 몰고 가지 말라. 79년생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이는 자유로울 수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64, 36

44년생 계산적인 금전 거래보다 인간적인 배려를 하라. 56년생 허풍선이치고 근심을 하는 이는 없느니라. 68년생 분위기를 잘 파악해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80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행운의 숫자 : 34, 06

45년생 취중에 본심을 노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57년생 친구와의 자유로운 대화는 어떤 위안보다도 낫다. 69년생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멋있게 처하라. 81년생 사나운 개가 일 생활 날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43, 05

46년생 괴원 언행이 쌓이면 죄가 되느니라. 58년생 모든 일이 즐겁게 시작된다. 70년생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의 참견이 있을 수 있다. 82년생 업무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상사 앞에서도 멋있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29

47년생 큰 사업일수록 언행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59년생 위험의 조짐이 보이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71년생 얼굴을 보는 것은 평판을 듣는 것보다 확실한 법이다. 83년생 상사병 연약 없다. 행운의 숫자 : 40, 72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신바람 갓2달된 애동제자
판문점으로 신원님의 열정하심을 시원하게 전해드립니다.
한도 여학원 연화사 ☎010.5523.0510 062.675-0510

EBS		EBS	
06:00 극한직업	10:00 최고의 요리비결 <김대업의 추억이 담긴 밥상>	16:30 뽀뽀맨 보로로(재)	18:50 외골짜기 친구들
06:30 직장학개론	10:30 60분 부모	16:45 방귀대장 뽀뽀맨(재)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1:30 공무의 왕도	16:55 꼬마버스 타요(재)	19:10 체로니모의 모험
07:10 체로니모의 모험	12:00 EBS 정오뉴스	17:15 매글매글 미술상(재)	19:35 스톱 호크
07:35 꼬마기관차 토미스와 친구들	12:10 교육, 화제의 인물	17:25 레온	20:00 서바이벌 쇼 영어 완전정복
07:45 뽀뽀맨 보로로	13:00 세계대사기행 <문화의 용광로, 스페인>	17:35 피들리팝	20:30 EBS 뉴스
08:00 뽀뽀맨 유치원	13:40 직장학개론(재)	17:45 부릉! 부릉! 부루미즈(재)	20:45 EBS 채널
08:20 꼬마버스 타요	14:1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너스1	20:50 한국기행 <임실>
08:35 매글매글 미술상(재)	14:5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8:10 바두와 친구들	21:40 극한직업
08:45 깨미	15:30 미스 스파이더와 개구쟁이들	18:15 생방송 특!특! 보너스2	22:50 다큐 10+
09:00 방귀대장 뽀뽀맨	15:55 뽀뽀맨 유치원(재)	18:20 생방송 특!특! 보너스3	00:00 지식채널e
09:10 부릉! 부릉! 부루미즈	16:15 깨미(재)	18:35 울리비아	00:05 공부의 왕도
09:25 똑딱똑딱 밥 아저씨		18:40 생방송 특!특! 보너스4	
09:40 변신로봇 5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4:10 EBS 포스 <김경현의 적본과 통계>	13:00 <윤연주의 외국어영역>	08:00 매경 TEST 시험 대비 강좌 <이희명의 세계사>	15:20 EBS 초등-내공남남 <사회 3-2>
05:00 2011 FINAL 실천모의고사 <박봉의 정치>	14:00 <민병권의 경제지리>	08:30 초등 수학-매스 트레이닝	15:50 <사회 4-2>
05:50 <김승희의 윤리>	15:00 EBS탐스런 <채수원의 화학 I>	09:00 EBS TV 중3 <영어>	16:20 <사회 5-2>
06:40 <김기홍의 언어영역>	16:00 <이희나의 화학 II>	09:40 <과학>	16:50 <사회 6-2>
07:30 EBS 포스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17:00 기본과 특별한 (재) <곽정환의 수학(하)>	10:20 EBS 중3 퍼펙트 체크업 <사회 1>	17:20 초등 수학-매스 트레이닝 <사회 1-2>
08:20 EBS 탐스런 <민병권의 세계지리>	18:00 <영문법 즐겨찾기>	11:00 Magic 중학영문법 Level 1 <수학 2-2>	17:50 EBS TV 중1 <수학 1-2>
09:10 <권유상의 법과사회>	19:00 2011 FINAL 실천모의고사 <여한중의 생물 II>	11:50 EBS TV 중2 <문학2>	18:30 <과학>
10:00 선생님 선생님 우리선생님	20:00 <최성목의 지구과학 II>	12:30 <과학>	19:10 EBS 중1 퍼펙트 체크업 <과학>
11:20 EBS 내신 6강 <정승제의 수학(하)>	21:00 <정현경의 수리 나한>	13:10 EBS 중2 퍼펙트 체크업 <수학 2-2>	19:50 EBS TV 중2 <문학2>(재)
12:10 2011 FINAL 실천모의고사	22:00 <고동욱의 수리 기행>	13:50 중학영어독해 Level 2	20:30 <과학>(재)
	23:00 <신승진의 세계지리>	14:30 초등 5학년 영어 Fly High	21:10 EBS TV 중3 <영어>(재)
		14:50 EBS 클럽뱅크	21:50 <과학>(재)
		15:10 사회가 속삭!	23:10 Magic 중학영문법 Level1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중국워	오하오우 니혼고
<p>머릿속/머리 속</p> <p>너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니? 너의 머리 속을 한 번 봤으면 좋겠다.</p> <p>'머릿속'과 '머리 속'은 쓰임이 다릅니다. 둘 다 '머리'와 '속'의 결합이지만 '머릿속'은 합성어이고 '머리 속'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쓰입니다. '머릿속'은 추상적인 공간을 가리키고, '머리 속'은 물리적인 머리의 속을 나타내는 경우 쓰입니다.</p> <p>-머릿속 :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머리 속 : 머리 속에 암 덩어리가 있어 드러냈다.</p> <p>'머릿속', '머리 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속, 물속, 빗속, 바닷속, 땅속' 등을 합성어로 처리하는 것은 물, 바다, 땅의 속을 물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숲은 나무가 자라는 일정한 지역을 가리키므로 그 속은 '숲 속'이 됩니다.</p>	<p>What time does the next train leave? 다음 기차가 몇 시에 옵니까?</p> <p>A : Hi, I'd like two tickets to Gwangju, please. B : Sure. What time would you like to depart? A : What time does the next train leave? B : Actually, one just left ten minutes ago. The next one is at 2 : 45. That gets in at 5 : 35. A : Okay. Could you give me two tickets for that? B : Sure. That'll be 32000 won, please.</p> <p>A : 안녕하세요, 광주에 가는 차표 두장 부탁드립니다. B : 네, 몇 시에 떠나실 건가요? A : 다음 기차가 몇 시에 옵니까? B : 기차 한 대가 방금 10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다음 기차는 2시 45분입니다. 5시 35분에 도착합니다. A : 알았습니다. 그걸로 2장 부탁드립니다. B : 네, 32000원 되겠습니다.</p> <p>* depart = leave * get in : 도착하다</p>	<p>送秋波 sòng qiū bō 추파를 던지다</p> <p>우리말에도 '추파(秋波)'를 던진다고 하지요. '추파'라는 말을 들으면 이성간에 귀찮게 집적거리리는 상황을 느낄 수 있는데, 원래는 추파라는 말 자체가 시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p> <p>잔잔한 호수에 가을바람과 함께 열게 물결 짓는 그 선을 여인의 눈빛에 비유한 것이지요. 살랑살랑 바람과 함께 가을 물결(秋波)이 내게 다가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듯 여인의 눈빛이 내게 다가온다고 했을 때의 설레임. 중국어 送秋波(추파를 보내다)라는 말은 '호감을 나타내다',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은 이미 그 느낌이 없어서 버린 듯합니다.</p>	<p>山田先生に連れて行ってもらいます。 야마다 선생님이 데리고 가 주세요</p> <p>A : 明日アジアの工場へ見学に行きます。 B : そうですか。誰が連れて行ってくれますか。 A : 山田先生に連れて行ってもらいます。 一緒にどうですか。 B : すみません、せっかくですが、先約があります。</p> <p>A : 내일 아시아 공장에 견학하러 갑니다. B : 그래요, 누가 데리고 가 줘니까. A : 야마다 선생님이 데리고 가 주십니다. 함께 어때요. B : 미안합니다. 모처럼 입니지만, 선약이 있습니다.</p> <p>[단어정리] 工場 공장 見学 견학 先約 선약 せっかく 모처럼 連れていく 데리고 가다 連れてくる 데리고 오다</p>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